

주식회사 전환바람으로 출판계 변화물결 출렁

세계혜택 금융지원 등 이점, 기업의 영속성장 기대도

연 매출 1조원 시대를 맞은 출판업계에 유명 출판사들의 주식회사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1~2년사이 주식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대표 김병익) 창작과비평사(김운수) 김영사(박은주) 새로운 사람들(이수구) 홍익출판사(이승용) 서적포(박효성) 세계사(최선호) 삶과 함께(석상준) 현암사(조근태) 미래사(김준묵) 명진출판사(안소연) 등 10여개사에 이른다.

더 큰 성장 위한 기반 다지기

출판업계의 이같은 변화는 출판시장의 규모가 커진데다 이들 회사의 성장규모도 점차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개인기업의 공기업화로 흐름에 따라 출판산업도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일게 된 것. 게다가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법인)로 회사형태를 바꾸면 회사경영이나 거래신용상 실보다는 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로 바꿀 경우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무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출판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인기업으로 세무신고를 할때 출판업은 부과세 면세업종이라 전년도보다 영업실적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해마다 세금을 20% 정도 늘려 신고(인정과세)해야 세무조사를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로 전환했을 때는 광고비·접대비·지출, 반품도서 등에 따른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실제 영업실적으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세계혜택 이외에도 금융신용도에서도 개인기업보다 앞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혜택과 금융혜택만을 얻기 위해 이들 출판사가 주식회사로 회사형태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로의 변화는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기반다지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다. 이들 출판사들의 탈바꿈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계몽사·삼성출판사처럼 상장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세습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닌 모두의 기업으로서 영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굳은 포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주먹구구식 경영을 청산하고 제2의 탄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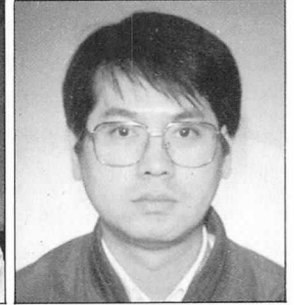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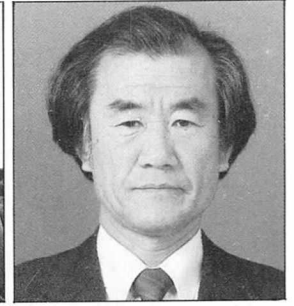
최근의 주식회사 전환바람은 세습적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기업으로서 영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굳은 포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 '창비' 등 문인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김영사' '대교' 등 출판그룹을 형성하는가 하면, 외국출판기업과 파트너 형태로 공동출판을 구상하는 출판사까지 다양한 양태의 주식회사 전환바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출판사들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문인들을 주주로 대거 영입하는가 하면 사원들과 독자들에게도 주주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출판그룹의 초석으로, 개방과고를 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삼는 곳도 있다.

70~80년대 우리 문단을 주도해온 쌍두마차인 '문학과지성사', '창작과비평사'는 각각 93년 1월, 94년 5월에 주식회사로 탈바꿈, 변신의 길로 첫발을 내디뎠다. 문단의 거목을 이루는 출판사답게 '문지'와 '창비'는 출신문인들을 주주로 대거 영입, 출판계에 화제를 뿌렸다. '문지'는 설립자인 문학평론가 김병익 김주연씨 등 1세대 동인에서 정과리 성민엽 등 계간 「문학과 사회」 동인이 주주로, 이밖에 '문지'와 관계가 깊은 문인들인 최인훈 이청준씨 등을 주주로 구성, 40여명의 문인이 주주로 참가했다.

창비는 계간 '창비'의 편집위원들인 문학평론가 백낙청 염무웅씨와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운수, 대표이사 부사장 겸 편집주간인 이시형씨 등 7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5월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창비' 직원들을 우리사주로 참여시킬 방침이었으나 직원들의 퇴직금 계승 요구로 2~3년뒤로 연기됐다. '창비'는 최근 이사회에서 이시형주간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 이시형주간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되었다.

이밖에도 문인들을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실천문학사'. 빠르면 올 4월 쯤 주식회사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실천문학사'는 민족문학진흥 작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집적진을 펴고 있다. 실천문학사의 박



상단 왼쪽부터 조근태(현암사) 김병익(문학과지성) 김운수(창작과비평) 이승용(홍익출판사) 최선호(세계사) 이수구(새로운 사람들) 사장.

문수 편집장은 "민족문학 자산을 만들기 위해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피하게 됐다"며 민족문학진흥 작가 외에도 실천문학사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천문학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2월말이나 3월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독립채산제 운영의 출판그룹 모양만들기도

김영사는 세계적인 출판그룹 '하퍼 콜린즈'를 모델로 미학사의 상호를 그대로 유지시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일원화됐던 편집부를 ▲문학 ▲비문학 ▲경제·경영 ▲과학 ▲개발(멀티미디어사업 및 참고서) 등 5개 분야로 섹션화, 팀장 체제하의 독립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5개 분야의 섹션화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의 시험운행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가동됐다.

김영사의 최봉수 편집장은 "이들 5개 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김영사는 모기업으로 남아 이들 5개 업체의 제작·인사·경리·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박은성 사장과 임원진 6명 등 7명이 명목상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3년뒤에는 김영사 직원들을 우리사주로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초 (주)대교가 창립한 (주)프레스빌(Pressville)은 ▲문예 ▲여성 ▲실용 ▲청소년 등 4개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을 구축, 출발부터 출판그룹을 형성화하고 나섰다. 프레스빌은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 일본의 이와나미(岩波)출판사, 미국의 랜덤하우스를 모델로 한국의 출판그룹을 꿈꾸고 있다. 팀장

체제하의 4개 디비전시스템을 향후 독립채산제로 운영, 프레스빌이 뜻하는 '출판의 모든 것이 살아숨쉬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서출판 삶과함께는 97년 출판개방에 대비해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는 것이 특징. 96년 연초를 목표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삶과함께는 주식회사로 전환해 자본을 축적한 후 외국 출판기업과 파트너 형태로 공동출판을 구상하고 있다. 삶과함께는 직원들을 우리사주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독자에게도 확대, 주주로서 참여기회를 줄 계획이다.

사회기업으로서의 문화창출 역할 맡아야

지난해 11월에 주식회사로 탈바꿈한 '새로운 사람들'은 출발부터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한 케이스. 지분의 51%를 이수구 대표와 이재욱실장이 소유하고, 39%는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사원들이 배분받은 상태. 나머지 10% 지분은 신입사원들을 위해 남겨 놓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홍익출판사가 1월 1일, 서적포가 1월 6일 주식회사로 재탄생했으며 세계사가 오는 6월경, 명진출판사가 내년초에 주식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암사도 주식회사로의 변화를 검토중에 있어 유명출판사들의 주식회사 전환 바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유명출판사의 법인전환 붐에 대해 범우사 부길만실장은 "세계혜택때문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원 및 독자에게 주주를 공개, 사회기업으로 전환한다면 문화를 창출하는 출판이념에도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철준>